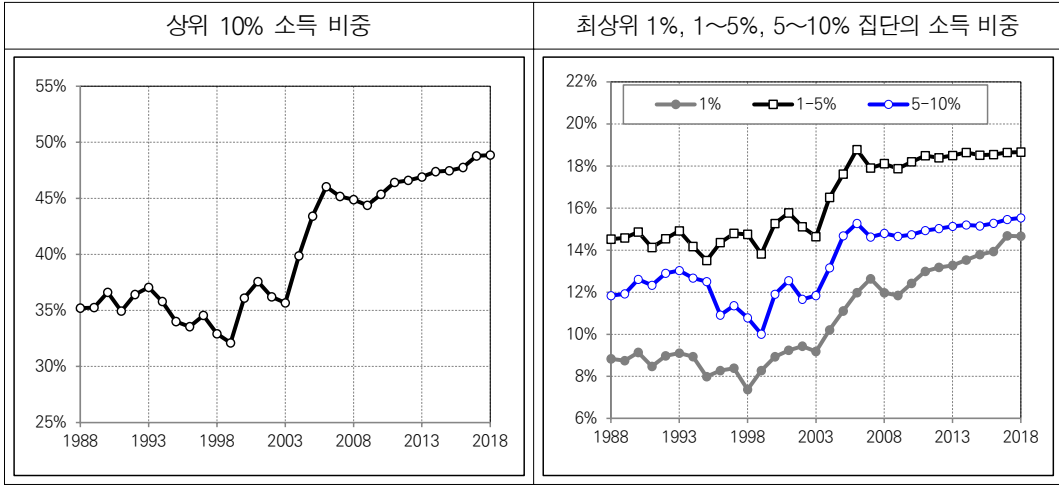


최상위 소득 비중 (~2018년)

- 이하 최상위 소득 비중은 개인 시장소득(= 임금+사업소득+금융소득)의 불평등 척도임.
 - 가구 시장 소득 및 가구 가처분소득에 대해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참고할 것.
 - 가구의원 분포, 가구원 소득의 상관관계에 따라 개인과 가구 소득 불평등 추세는 다를 수 있음.
- 최상위 소득 비중(=최상위 소득 1% 집단의 소득÷총소득)의 계산법
 - 자료: 『국세통계연보』
 - 소득: 시장소득=노동소득(임금, 보너스, 스톡옵션)+사업소득+금융소득(배당, 이자)
 - 총인구: 20세 이상 인구
 - 총소득: 국민계정 개인부분 순분원 소득의 80%
- 2018년 통계의 특이사항
 -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개정 수치가 새로 공표되어 이를 시계열 자료에 적용함.
 - 2010년 기준년 통계에 비해 개인 순분원 소득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최상위 소득 비중의 분모인 총소득값이 증가함. 그 결과 새로 산출된 최상위 소득 비중값이 작년에 계산한 것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함.
- 2018년 최상위 1%, 5%, 10% 소득 경계값은 각각 1억 4,087만 원, 7,665만 원, 5,254만 원
- 최상위 소득 비중 추세(그림 1, 표 1 참조)
 - 2018년 최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48.9%. 자본주의 발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 최상위 1%를 제외한 1~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2007년 이후 완만한 추세
 - 최상위 1% 소득 비중 증가가 상위 소득 비중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 최상위 1% 집단의 소득 비중은 2009년(11.8%)부터 2018년(14.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2017년에 경기요인으로 추세보다 약간 높은 수치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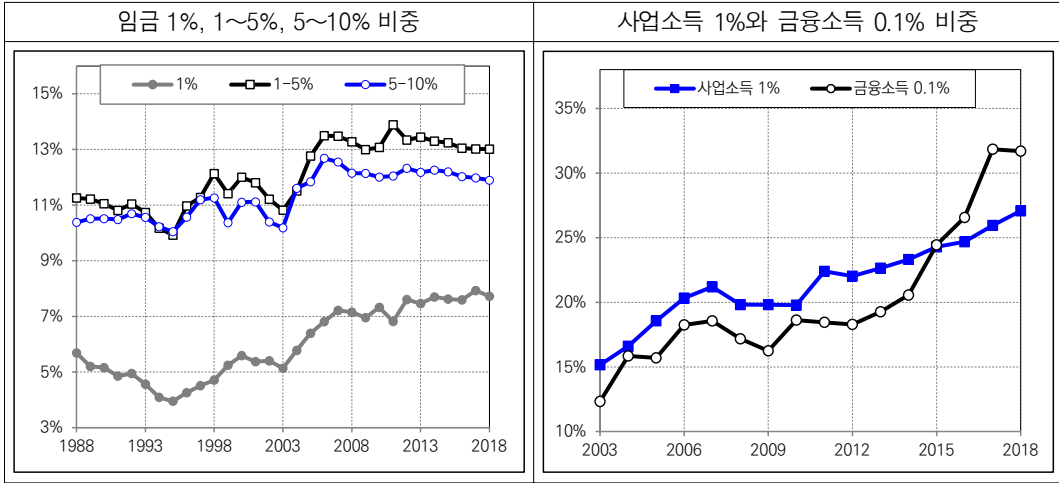
[그림 1] 최상위 소득 비중



<표 1> 최상위 소득 비중과 소득 경계값

	20세 이상 인구 (천 명)	총소득 (억 원)	소득 비중(%)				소득 경계값(백만 원)		
			p99~100	p95~99	p90~95	p90~100	상위 1%	상위 5%	상위 10%
2002	33,556	379,548	9.44	15.12	11.66	36.22	63.42	33.00	19.56
2003	34,016	406,014	9.19	14.64	11.84	35.67	55.62	34.08	19.93
2004	34,482	434,700	10.21	16.51	13.16	39.87	71.19	39.17	27.64
2005	34,955	456,819	11.11	17.62	14.68	43.41	79.18	44.87	26.62
2006	35,310	483,158	11.98	18.78	15.27	46.04	91.18	48.96	36.64
2007	35,668	515,429	12.64	17.90	14.62	45.17	90.38	51.43	34.73
2008	36,030	541,036	11.97	18.11	14.80	44.89	95.10	54.05	36.62
2009	36,396	559,112	11.85	17.88	14.65	44.38	96.23	54.79	37.04
2010	36,765	595,455	12.42	18.20	14.74	45.36	100.54	57.88	39.51
2011	37,657	632,605	12.99	18.50	14.93	46.42	107.26	60.76	41.82
2012	38,571	662,361	13.18	18.39	15.03	46.60	103.44	62.19	44.83
2013	39,507	695,620	13.27	18.50	15.13	46.91	109.64	64.47	46.09
2014	40,465	730,368	13.53	18.65	15.20	47.38	115.74	66.78	47.16
2015	41,447	779,035	13.79	18.52	15.15	47.46	122.13	69.44	48.48
2016	41,926	808,378	13.94	18.55	15.28	47.76	127.53	71.76	49.72
2017	42,430	841,135	14.69	18.64	15.46	48.79	134.65	74.49	51.18
2018	42,976	876,494	14.66	18.66	15.53	48.86	140.87	76.65	52.54

[그림 2] 임금, 사업소득, 금융소득의 집중도



○ 각 소득 항목의 집중도 변화(그림 2 참조)

- 2010년대에 임금 최상위 1% 비중은 완만히 증가, 1~5%와 5~10% 임금 비중은 매우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임. 임금 1% 비중은 2017년 7.93%에서 2018년 7.72%로 소폭 감소.
- 금융소득 0.1% 집단이 총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6.2%에서 2017년 31.8%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 31.7%로 상승 추세 멈춤. 이는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이자소득 총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사업소득 최상위 1% 집단이 총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9.8%에서 2018년 27.1%로 지속적으로 상승함.
- 2018년 사업소득 2억 원 이상을 업종별로 보면, 의료업 43.2%, 제조업 16.4%, 도소매업 11.8%임. 2010년대 사업소득 집중도 증가도 의료업과 도소매업이 주도
- 2010년대 이전까지는 임금 불평등이 최상위 1% 소득 비중의 증가를 주도한 반면, 2010년대부터는 금융소득(특히 배당)과 사업소득 불평등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

○ 계산방법,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ites.google.com/site/hminki00/>을 참고 **KLI**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